

간호학 전공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College Life Adaptation and Loneliness among Non-Traditional Adult Learners Majoring in Nursing

양은주, 김계하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Eun-Ju Yang(bivora@naver.com), Kye-Ha Kim(kyehakim@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 전공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을 알아보는 것이다. 횡단적 조사 연구가 실시되었다. G시에 소재한 4개 4년제 대학에서 110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일반적 특성, 대학생활 적응 척도, UCLA 외로움 척도를 포함한 구조적 설문지가 연구도구로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가 사용되었다. 대학생활 적응 평균은 44.8점이었고, 외로움 정도는 40.3점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은 대상자가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로움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외로움이 클수록 대학생활 적응은 낮았다. 따라서 이 결과들은 국내 대학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 중심어 : | 대학생활 적응 | 외로움 | 성인학습자 | 간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llege life adaptation and loneliness of non-traditional adult learners with nursing major.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on one hundred and ten participants from selected universities in G city.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a College Life Adaptation Scale and a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was a study instrument.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average level of college life adaptation was 44.8, while the score for loneliness was found to be 40.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perceived health status. Lonelines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loneliness. In other words, the greater the loneliness, the lower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us, th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universitie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loneliness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adult learners with varied backgrounds to college.

■ keyword : | College Life Adaptation | Loneliness | Adult Learner | Nursing |

I. 서론

1.1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로 이루어졌던 1954년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1]. 대학은 양적인 팽창을 계속해 왔지만 최근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교육의 인적자원 감소와 함께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같은 국가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2]. 이에 따라 2008년 이후의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이 학령기 학생에 초점을 두고 사회진입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현재의 대다수의 대학들은 현 시대 여건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3]. 특히 학령기 인구가 2015년 892만 명에서 2025년 708만 명으로 향후 10년간 184만 명이 감소할 전망인 상황[4]을 바라보면서 수도권 대학보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만학도 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등 특별전형 형태로 성인대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대학들이 증가하게 되었다[3]. 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성인학습자는 전문대학 99,335명, 4년제 대학의 경우 361,442명,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이 366,433명으로 총 827,2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5].

성인학습자는 대학진학 적령기를 경과하여(만 25세 이상)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의미하는데 대학교 입학전형에서는 '고령자, 만학도, 만학자, 평생교육자전형'이라는 용어로 분류되며, 가장 보편적으로 '만학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6]. 성인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과 인생 경험 등으로 인해 학령기 학생들과는 또 다른 교육 요구를 가지고 있어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7].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 생활에 관한 연구[8]에서 참여자들은 '전공이 다른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대학문화에 어울리지 못함'으로 인한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의 교육과정이 대학 교육과정과 중복되는 영역이 없거나 적어 학과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방법

등을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나이 어린 선배들이 나이 많은 참여자를 불편해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사운영은 여전히 전통적인 학습자에게 맞추어져 있어 성인 학습자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9].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성인학습자들 중에서도 특히 간호학 전공 성인학습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1만 8,869명으로 2008년 1만 1,775명 대비 약 7,094명이 증원(국군사관학교 제외)되었다. 실제 입학인원은 정원 외를 포함할 경우 100.8%(1만 1,867명)가 증가한 2만 3,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2015년 보건의료인 국가고시에서 간호사 국가고시의 현황 및 연령대를 보면 성인학습자의 기준인 25세 이상인 20대의 응시현황은 재학생과의 나이 겹침으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30대와 40대를 비교했을 때 30대가 2015년 응시인원이 871명이었고 2016년에는 1056명으로, 40대는 2015년에 196명이 2016년에는 28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고려해 볼 때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성인학습자의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1].

또한 성인학습자들은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연구[8]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외로움을 호소하여 단순히 대학생활 적응만이 이들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인 사람간의 관계망이 양적으로든지 질적으로든지 결핍될 때 일어나는 불유쾌한 경험이라고 대부분 정의되어진다[12].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관계가 만족되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13]. 대학생은 외로움을 강도 높게 인식하는 시기이며[14], 외로움이 대학생의 일반적인 문제라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5].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학과 내 편입생과 일반재학생을 비교한 연구결

과[16]에서도 이들 간에는 대학생활 적응이나 소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외로움을 많이 지각할수록 Social Network Service(SNS)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나 자살시도 경향이 높아지는 등[17][18] 대학생들의 외로움 정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지금까지 성인학습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12-14] 타학과 성인학습자의 학업만족도나 자기효능감, 또는 진로 적응성 등[19-21]의 연구가 있을 뿐 간호학을 전공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인식하는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의 4개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 전공의 성인 학습자 110명이다. 연구대상 대학은 “만학도, 취업자 특별입학전형”을 통해 매년 성인학습자가 입학하는 학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재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하지 않은 자, 25세 이상인 자. 제외 기준은 군대 제대, 휴학과 복학으로 인한 단순 연령 증가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rrelation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최소표본 수를 구하였다.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q 는 중간 크기 .30, 검정력 $1 - \beta$ 는 .80의 조건을 고려할 경우 최소 표본 수는 84명이었다. 그러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15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전수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 미기재 응답이 많은 질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110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구도구

1)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혜연과 하창순[22]이 개발한 ‘지방 중위권 대학의 대학생활 적응’ 도구 7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저자에게 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적응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웬 만큼 그렇다’ 1점, ‘매우 그렇다’ 2점으로 측정하는 Likert의 3점 척도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52점까지 측정 가능하다. 대학생활 적응 검사결과는 절단점수(cut-off score)의 기준을 통해 고위험군(전체 학생 중 백분위 90 이상), 잠재적 위험군(전체 학생 중 백분위 80~90), 정상범주군(전체 학생 중 백분위 80 이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22].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낮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5였다.

2) 외로움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Cutrona[23]가 개발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를 김옥수[24]가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도구 번안자에게 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각 항목의 외로움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4점까지 측정하는 Likert의 4점 척도이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측정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옥수[2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C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의 승인(2-1041055-AB-N-01-2016-0020)을 받았다.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IRB 승인 후인 2016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였다. G광역시에 소재한 4개 4년제 대학의 학과장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후 수업이 끝난 강의실에 들어가 간호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참여대상자의 조건 및 진행과정, 수집한 자료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를 마친 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작성시간은 평균 10~15분가량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외로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을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이 85.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33.9세로 25~29세와 30~39세가 각각 36.4%였다. 2학년이 60.9%로 가장 많았고 미혼인 경우가 57.3%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61.8%였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녀가 2명 있는 경우가 60.5%로 가장 많았다. 동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80.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41.8%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입학 전 전공으로는 인문계열이 45.5%였으며, 입학 전 직업으로는 간호조무사가 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1.8%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다수(83.6%)가 주관적 경제수준을 ‘중간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간호학과 지원은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 77.3%였으며, 현재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50.0%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징 (N=110)

특성	분류	실수(빈도)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16(14.5)	33.9±8.43
	여	94(85.5)	
연령	25-29	40(36.4)	33.9±8.43
	30-39	40(36.4)	
	≥40	30(27.2)	
		67(60.9)	
학년	2	22(20.0)	33.9±8.43
	3	21(19.1)	
	4	67(60.9)	
결혼여부	예	47(42.7)	33.9±8.43
	아니오	63(57.3)	
자녀유무	예	42(38.2)	33.9±8.43
	아니오	68(61.8)	
동거 형태	가족과 함께	89(80.9)	33.9±8.43
	혼자	14(12.7)	
	기타(친구, 조부모)	7(6.4)	
입학 전 학력	고졸	31(28.2)	33.9±8.43
	전문대 졸	46(41.8)	
	대졸이상	33(30.0)	
입학 전 전공	인문계열	50(45.5)	33.9±8.43
	자연계열	4(3.6)	
	예체능계열	8(7.3)	
	기타	48(43.6)	
입학 전 직업	간호조무사	42(38.2)	33.9±8.43
	의료서비스	8(7.3)	
	기타(회사원 등)	60(54.5)	
현재 경제 활동 여부	예	42(38.2)	33.9±8.43
	아니오	68(61.8)	
경제수준	중상이상	18(16.4)	33.9±8.43
	중하이하	92(83.6)	
학과지원 결정	본인혼자결정	85(77.3)	33.9±8.43
	기타	25(22.7)	
현재 건강상태	좋다	55(50.0)	33.9±8.43
	보통이다. 안좋다	47(42.7) 8(7.3)	

3.2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총점 152점 중 최저 6점부터 최고 119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44.80(±23.83)으로 정상 범주군에 포함되었다. 정상 범주군은 평균이 35.94(±15.84)였고, 잠재적 위험군은 평균이 72.70(±4.11), 그리고 고위험군은 평균이 91.36(±10.85)였다.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총점 80점 중 최저 21점에서 최고 55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40.32(± 8.15)였다[표 2].

표 2.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정도 (N=110)

변수	평균±표준편차	실수 (빈도)	최소	최대
대학생활 적응	44.80±23.83		6.00	119.00
정상범주군	35.94±15.84	89(80.9)	6.00	66.00
잠재적 위험군	72.50± 4.11	10(9.1)	67.00	79.00
고위험군	91.36±10.85	11(10.0)	82.00	119.00
외로움	40.32± 8.15		21.00	55.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은 [표 3]과 [표 4]와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현재 건강상태(F=7.8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결과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학년(F=3.91, p=.02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3학년이 4학년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N=110)

특성	분류	대학생활 적응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41.25±22.04	-0.64	.521
	여	45.41±24.18		
연령	25-29	44.30±23.18	0.14	.873
	30-39	46.32±26.35		
	≥40	43.46±21.75		
학년	2	43.70±22.75	0.24	.789
	3	47.72±26.39		
	4	45.28±25.35		
결혼여부	예 아니오	42.82±22.53 46.28±24.83	-0.80	.454

자녀여부	예 아니오	42.30±20.87 46.35±25.52	-0.90	.390
등거형태	가족과 함께 혼자 기타	43.58±24.28 49.28±19.90 51.42±26.35	0.63	.535
입학 전 학력	고졸 전문대 졸 대졸이상	47.74±22.35 42.56±20.59 45.18±29.23	0.43	.646
입학 전 전공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41.88±24.28 47.00±13.88 54.50±18.66 46.06±24.72	0.74	.529
입학 전 직업	간호조무사 의료서비스 기타	45.00±19.90 32.75±18.47 46.28±26.67	1.14	.323
현재경제 활동 여부	예 아니오	48.54±23.92 42.50±23.65	1.30	.197
경제수준	중상이상 중하이하	48.50±34.34 44.08±21.37	0.52	.605
현재 건강상태	좋다 ^a 보통이다 ^b 안좋다 ^c	37.10±20.57 50.48±23.88 64.37±26.70	7.80	<.001 (a ,b,c)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 (N=110)

특성	분류	외로움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42.06±8.61	0.92	.360
	여	40.03±8.08		
연령	25-29	38.37±8.54	1.83	.166
	30-39	41.45±7.70		
	≥40	41.43±7.99		
학년	2 ^a	40.29±8.16	3.91	.023 (b)c
	3 ^b	43.68±6.35		
	4 ^c	36.90±8.70		
결혼여부	예 아니오	41.25±7.82 39.63±8.39	1.57	.305
자녀여부	예 아니오	41.07±8.13 39.86±8.19	1.08	.455
등거형태	가족과 함께 혼자 기타	39.95±8.14 43.21±8.04 39.28±8.59	1.02	.362
입학 전 학력	고졸 전문대 졸 대졸이상	41.12±9.22 39.13±7.89 41.24±7.46	0.90	.430
입학 전 전공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39.68±7.56 43.56±2.88 47.00±7.91 39.62±8.68	2.28	.083
입학 전 직업	간호조무사 의료서비스 기타	40.54±8.04 38.12±4.64 40.46±88.64	0.31	.733
현재경제 활동여부	예 아니오	40.97±8.18 39.92±8.17	0.80	.515
경제수준	중상이상 중하이하	38.22±10.07 40.73±7.72	-1.20	.233
학과지원 결정	본인 기타	40.80±8.18 38.72±8.02	1.12	.264
현재 건강상태	좋다 보통이다 안좋다	39.45±8.36 41.38±7.83 40.12±8.88	0.70	.495

3.4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 적응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56, p<.001$).

표 5.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N=110)

변수	대학생활 적응	외로움
	r(p)	r(p)
대학생활 적응	1	.56 (p <.001)
외로움		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총 152점 중 평균 44.80점으로 본 도구에서 제시한 대학생활 적응의 기준 점수인 정상 범주군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 학습자들이 간호학과 전공으로 하는 대학에 들어와서 기존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일반 학생들과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연구[6]에서 성인학습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존전략을 개발하여 대학생으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이 ‘일반 학생들과 친구 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6]. 선행연구[25]에서는 만학도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대학동기들의 인정 및 학습방법의 도움, 교수님들의 동기부여 등의 인간관계 요인을 꼽았다. 성인학습자만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들은 학업 지속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주는 ‘학습 도우미’가 되고, 반면에 성인학습자들은 좀 더 나

이 많은 성인으로서 일반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이나 졸업 후 진로, 혹은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 해본 선배로서의 ‘멘토’역할을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적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 교육자나 학과 관련자들은 일반 학생들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일반 학생들과 성인학습자들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데 필요한 역할모델을 제시해주고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외로움은 평균 40.32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지역 일반 대학생들의 외로움 정도가 40.1점으로 나타났던 연구결과[18]와 유사한 정도이다.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크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 이므로 같은 환경이라도 사람에 따라 지각되는 외로움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므로 외로움 정도가 높게 나타난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대상자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본 결과,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교육의 특성 상 학업분량이 타과에 비해 많고, 실습 등으로 체력 소모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가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대학생활 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연령도 높으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외에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가 없었으나 타학과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26]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학습자들이 학위취득, 직업관련 교육의 필요성, 자격증 취득과 같은 강력한 외재적 동기가 있을 때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2] 연구결과에서 보듯 간호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는 간호학과가 3, 4학년 때 임상실습을 나가는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간호사면허증을 따기 위한 국가고시 준비를 하는 등 타학과와는 다른 간호학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에 간호학과 전공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3학년이 4학년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을 수 없어 특별히 3학년에서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본 연구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4년제 대학교의 간호학과는 일반적으로 학과의 특성상 3학년 때부터 임상실습을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성인 학습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향후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외로움 간의 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대학생의 외로움과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27]를 고려하여도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인 학습자들을 접하게 될 때에는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6]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이 낯선 환경에서 소수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적응상담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조성, 멘토(mentor) 교수제, 만학도 동아리방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Dill과 Henley[28] 역시 성인 학습자와 일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 근거 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 및 내부 요인 관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

했다. 미국의 한 대학 사례를 보면, 성인학습자 지원 과정에서부터 학교 담당자들이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를 하며 정보를 제공해 준다[7].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 등에서 성인학습자 특성에 기초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와 학습자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9]. 그러나 외국의 사례는 아직 우리나라와는 문화적, 환경적 차이가 있고 간호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간호학 전공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상태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교육기관을 포함한 차원에서 체계적 지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학과 성인학습자들은 조무사나 병원계열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입학한 학생들이 많았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 재학생들의 '조무사'나 타 직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러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국내와 국외에서 연구되었던 성인 학습자에 대한 학업 지속과 중단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간호학과 성인 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 앞으로 대학 차원에서 학과별,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성인학습자용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외국인 학생들, 탈북자 자녀 등과 같은 기타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1] 이재대, 문승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 분석,” *중등교육연구*, 제27권, pp.97-130, 2015.
- [2] 방희명, 박현욱, “특수교육 및 재활 전공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제26권, 제3호, pp.87-99, 2010.
- [3] 박진영, “지역대학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제14권, 제3호, pp.47-75, 2012.
- [4]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1B09&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E_2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_n_path=E1
- [5] 정연희, “성인학습자의 참여 고취를 위한 대학평생교육의 특성과 조건분석,” *한국방송대학교*, 제14권, pp.1-78, 2015
- [6] 채재은, “미국의 성인대학생 적응지원 사례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pp.155-177, 2008.
- [7] 권진희, “대학의 성인학습자 지원 체제: 미국 펜실바니아주립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제19권, 제4호, pp.123-148, 2013.
- [8] 백영립, 송병남, “성인 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 생활에서의 갈등 체험,” *질적연구*, 제16권, 제2호, pp.85-95, 2015.
- [9] 임중해, *만학도 전형 입학생의 대학교육 경험과 의미에 대한 탐색: 경기지역 C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10] 대한간호협회 웹진,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2014/read_article.php?webzine_id=46&sub_cat_id=464&is_sub_no=791&article_id=1036
- [11]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set/3049435/fileData.do>
- [12] L. A. Peplau and D. Perlman,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and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Wiley & Sons Pub, pp.1-18, 1982.
- [13] H. S.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orton Pub, 1953.
- [14] C. Rubenstein and P. Shaver,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2, No.3, pp.290-294, 1982.
- [15] C. Cutrona, “Transition to college: Loneliness and the process of social adjustment,” In L. Peplau and D. Perlman (ed.),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Wiley & Sons Pub, pp.291-309, 1982.
- [16] 조혜경, 정수경, “대학생활 스트레스, 소외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간호학과 편입생과 일반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7권, 제5호, pp.2779-2793, 2015.
- [17] 박용기,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SNS 증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권, 제1호, pp.95-125, 2014.
- [18] 이영미, “대학생의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외로움 및 자살시도의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5541-5549, 2011.
- [19] 방희명, 박현욱, “특수교육 및 재활 전공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제26권, 제3호, pp.87-99, 2010.
- [20] 조성연, 홍지영, “진로상담 :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한국상담학회*, 제11권, 제3호, pp.1099-1115, 2010.
- [21] 홍아정, “학습을 통한 자아의 재구성: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경험 이해,” *한국성인교육학회*, 제12권, 제4호, pp.185-218, 2009.
- [22] 선혜연, 하창순, “지방 중위권 대학의 대학생활 적응도 검사 개발 연구,” *교육연구논총*, 제34권, 제1호, pp.209-226, 2013.

- [23] D. Russell, L. A. Peplau, and C. E. Cutrona,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3, pp.472-480, 1980.
- [24] 김옥수,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대한간호학회지*, 제27권, 제4호, pp.871-879, 1997.
- [25] 이정희, 안영식,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제13권, 제3호, pp.89-116, 2007
- [26] 이미아, 이순덕, "신입생 대학적응 프로그램의 정규 교육 과정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탐색," *남부대학교 논문집*, 제13권, pp.110-120, 2013.
- [27] 김효정, 김은하, "불안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7권, 제2호, pp.157-179, 2016.
- [28] P. L. Dill and T. B. Henley, "Stressors of college: A comparison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tudents," *J. of Psychology*, Vol.132, No.1, pp.25-32, 2010.
- [29] 홍승정, 권진희, 이민우, *첫 학기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05.

김 계 하(Kye-Ha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 취약계층, 건강교육

저 자 소 개

양 은 주(Eun-Ju Yang)

정회원



- 2013년 8월 : 조선대학교(간호학석사)
- 2016년 6월 : 조선대학교(간호학박사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광주 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성인학습자, 외로움, 노인우울, 수용전념치료